

조선 고승비문 조사 '목록화'

가산불교, 행장일람도 작성 9월 발표 262기 정리... 조선불교사 바로보기 '한몫'

기초적 자료정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던 조선시대 고승비문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조선불교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이 9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조선시대 승려비명(碑銘) 및 행장(行狀) 일람(一覽)' 프로젝트는 전문연구위원 최원식씨(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가 중심이 되어 조선시대 고승비문과 행장을 집중해 목록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

이번 조사는 그동안 조선불교 금석문 정리와 이르지 않아 연구가 미비했던 조선불교사 바로보기의 첫 출발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조사된 비문은 '충주 청룡사 보각각사환암 정혜원승 탑비문(忠州靑龍寺普覺國師幻庵定慧圓融塔碑文)' '양주 회암사 무학왕사 묘엄존자 탑비문(楊州檜巖寺無學王師妙嚴尊者塔碑文)'을 비롯 총 2백62기(행장 89개 포함)

에 달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조사된 신라 이후 고려시대까지의 고승비문 94기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지관스님은 "그동안 한국불교사 연구의 비중이 조선 이전으로 치중됐던 이유도 기초적인 자료 정리가 이뤄져 있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며 "이번 자료 정리를 계기로 조선불교 연구를 위해 여러 문헌을 찾아야 하는 불편과 수고를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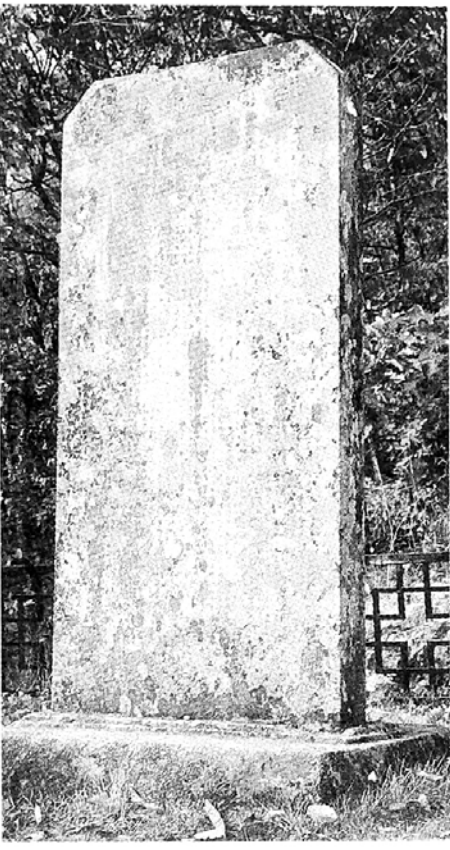
가산불교연구원은 이번 조사연구를 위해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 전기편(傳記篇)을 토대로 목록을 작성하고, 그 범위를 1392년 조선건국 이후부터 1910년 한일합방 이전에 일정한 고승으로 했다. 자료의 수집은 <한국불교전서> 조선편과 스님들의 문집·저술 등을 참조하는 한편, 장서각과 규장각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각종 금석문 탁본자료를 입수했다. 또 각 사찰의 사지에서 관계자료를 검색하고 최근 간행된 <한국문집총간>에서 당시 유학자의 문집이나 유학집과 그

목차에 나타난 비문과 행장을 발췌했다. 그러나 생존연대나 행적을 알 수 없는 것과 제자들의 명단이나 임비(立碑) 연도만 기록돼 있는 비문 등은 제외시켰다. 최원식씨는 "현재까지 조사된 총 2백62기의 비문 가운데 17세기 비문 10여개와 18~19세기 비문 10여개는 지금까지 문집 등에 소개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추가로 발굴되는 비문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조선불교 연구자료로는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 상권(1918), 고교형의 <이조불교(李朝佛敎)> 등의 통사류를 비롯,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의 <조선왕조실록불교사료집>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직 조선불교의 실상을 직접 엿볼 수 있는 당시 승려들의 비문과 행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이뤄진 바가 없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완성된 '조선시대 승려비명 및 행장 일람' 목록을 <가산학보> 제7집에 수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94~97년 간행된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校監譯註 歷代高僧碑文)> 신라편(1권)·고려편(4권)에 이어 조선편 제1권을 간행할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조선편 1권에 수록되는 '청룡사보각각사정혜원승탑비(靑龍寺普覺國師定慧圓融塔碑)' 보물 제68호로 충북 증평에 소재.

"대승불교서적 간행에 주력"

인터뷰 대승불교 연구원 오형근 교수

"한국불교가 지금의 침체기를 극복하는 길은 대승불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동국대를 정년퇴임한 오형근 명예교수가 18일 오후 5시 서울 목동 대학문화원 1층에 '대승불교연구원'을 개원한다.



오교수는 "대승불교사상은 한국불교 전면에 걸쳐 면면히 흐르는 깨달음에 오려려 연구가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대승사상 연구와 함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승불교 서적 간행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오교수는 <반야심경> 간행을 연구원의 첫 사업으로

잡고 있다. 또 오교수는 "일반 젊은층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며 "연구원 방안을 개발, 매주 1회 법회와 함께 4월부터 불교학개론과 유식학 강좌 등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02)264-7120

'태·성종대 미술' 세미나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연구소(소장 문명대)는 21일 오후 2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제2 세미나실에서 '태·성종대의 미술'을 주제로 미술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태·성종대의 건축(이강근·경주대 교수) △조선 전반기 불경관화의 양식(박도화·동국대 박물관 학예실장) 등 3편이 발표된다.(02)260-3426

이상 詩 '오감도'

중심사상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홍영철씨 동대 석사논문

난해(難解) 시의 대표격인 이상(李箱)의 <오감도·烏監圖>의 중심사상은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오감도'가 열세와 허무, 자폐적인 이상의 사상을 담고 있다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제기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인 홍영철씨는 '97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이상 <오감도>연구'에서 "오감도는 15편의 연작시로서 별개의 동떨어진 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써 일관된 사상을 담고 있다"고 전제하며 "시에서 보여지는 이상의 세계관은 동양적 세계관으로, 특히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좌자의 '무위자연' 사상에 바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오감도>는 총 30편을 예정으로 1934년 '조선중앙일보'에 처음 연재됐으나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난해함으로 독자들의 투서가 잇따르자 증도차차, 15편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색즉시공 공즉시색'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시는 제1호와 제3호.

제1호는 '13명의 아해(兒孩)'가 도로를 질주하는, 그저 하나의 상황을 그려보고 있다. '第一의兒孩가무섭다그리고第二의兒孩도무섭다그리고... 第十三의兒孩도무섭다그리고...' (길은돌난골목이라도適當(適當) 十三人의兒孩가道路로疾走하지아니하여아도속(速))

홍씨는 "다만 괄호 속에서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긍정(질주함, 돌린 괄목)과 부정(질주하지 아니함, 막다른 골목)을 동일한 선상에서 진술하고 있다"며 "외형상 대칭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 이 시는 이상이 생각하는 세계인식, 즉 색의 세계는 공의 세계이며 공의 세계 또한 색의 세계라는 순환논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3호는 '싸움하는사람은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고또싸움하는사람은싸움하지아니하는사람이엇기 도하니까...'로써, '싸움하는 사람'은 곧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며, '싸움하는 사람'은 곧 '싸움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싸움'이라는 것은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작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상에게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었기 현상은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씨는 "오감도가 씌어질 당시(1920년대)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상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인식을 통해 사물과 세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 같다"며 "그러한 그의 세계관은 열세적이고 허무적이기 보다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도전적 회망의지로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Location: <http://www.parallax.org/>
 What's New | What's Cool | Handbook | Web Search | Hot Directory | Updates

One World, One Love, One Heart

Baltimore/Washington DC Area Meditation Groups Information

Main Menu:
 * List of Meditation groups in the greater Washington DC - Baltimore area

태평양 사이버 기행
티낙한스님 정념 운동

1966년부터 명망자 신분으로 베트남 불교를 전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티낙한스님(Thich Nhat Hanh)의 수행·교화·저술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

△ '워싱턴 정념회' (Washington DC Area Meditation Groups Information · <http://www.erols.com/childers/mgl/>)는 티낙한스님의 '정념수행'의 정의와 수행법을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 정념회는 1989년 프랑스 플렘빌리지 사원에서 티낙한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미국 불자들이 귀국, 결성한 신행단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념수행 5대원칙은 티낙한스님의 저서 <내세를 위해(For a Future to be Possible)> 중에서 정념 정의와 수행법을 요약·정리해 놓은 수행법이다.

정념수행은 정념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현대 서구 사회의 생활·사고방식에 맞게 재해석한 수행법.

△ 플렘빌리지(Plum Village · <http://parallax.org/scripts/parallax/>)는 프랑스 남서부지역에 개원된 티낙한스님의 정념수행처(處). 이곳에서는 정념수행을 실천하는 30여명의 스님들이 상주하며 세계 각국에서 장·단기 수행을 위해 방문한 재가불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티낙한스님 법문, 대중수행 사진, 베트남 소식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패럴랙스출판사(Parallax Press · <http://parallax.org/scripts/parallax/>)는 티낙한스님의 저술을 주로 소개하는 사이트이다. 현재 <경화문음> 등 스님의 시·기도·교리서 등 70여권의 책이 소개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구매서'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홍콩 불교단체 늘고있다

중국영향... 기독교적 종교편향 완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들어선 홍콩 종교계에 불교·도교 등 전통 종교의 교세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프피스터교수(홍콩신학대)는 <미국종교학회> 겨울호에 게재한 '중국 정치권에 들어선 홍콩 종교계 고찰'에서 "불교·도교 등 중국의 전통 종교계가 청장년을 겨냥한 새로운 종교단체들을 만드는 등 홍콩 종교계의 지각변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홍콩의 종교인구는 전국민의 42%, 이중에서 기독교가 25%로 가장 우세하고 도교 10%, 불교 7% 등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프피스터교수는 "이같은 비율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150여년동안 영어를 구사하며 기독교를 믿는 홍콩인들의 사회적 신분 상승이 빈번했고, 홍콩의 교육기관중 기독교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웃도는 등 홍콩 사회의 종교편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피스터교수는 "중국 광둥성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도교·불교 관련 소모임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불교인 등 전통종교인들에 대한 사회·정치적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무진장스님과 평생경전공부 회원 모집

1. 개설 취지
 본회에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전범이념으로 무진장스님을 범주로 모시고 창립하여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근세 한국불교포교에 앞장섰던 무진장스님에게 직접 대승불교 경전을 공부할 평생회원을 모집하여 그 뜻을 기리고 수행공부코저 합니다.

2. 공부과목
 금강경, 육조단경, 발심수행장, 선가귀감, 유마경, 반야심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천태학(천태사교의, 법화현의, 법화문구)법화경(방편품, 여래수량품), 화엄경(십지품, 입법계품)

3. 제출서류 및 공부방법

제출서류	법회일시·장소	입지수계
· 입회원서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매주 일요일 오후 6시~8시 동산법당(안국동)	매과목 공부후 정기적으로 무진장스님으로부터 입지수계

4. 개강 일시 1998년 4월 5일(일) 오후 6시

5. 문의및 접수 동산반야회 사무국(전화: 732-1206~8, FAX: 732-1207) 110-170 서울시 종로구 전지동 13번지

6. 입 회 금 오만원(매월회비 삼만원)

* 평생 경전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평생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무진장스님과 함께하는 평생 경전 공부반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반야회장 김재일

봉 축 현 수 막

불기 2542년

奉 부처님 오신날 祝

대한불교 조계종 ○ ○ 사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아기부처님 관육의식을 상징화하여 한울기획에서 현수막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아기부처님 오신날 봉축 아기부처님 현수막을 제작한 저희 한울기획은 IMF 시대에 국민의 고통을 아기부처님의 자비 공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큰스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가격 90cm x 6m = 35,000 (그외의 현수막은 상담후 결정)

한 울 기 획 T. (02)474-2040~1
 F. (02)477-2316

현수막 1장 주문하시면 등꼬리표 100장을 드립니다.